

농어촌공 군산지사, 이원택 국회의원 등 초청 올해 업무추진 설명회 가져

강경창 기자 | 승인 2025.02.16 05:39

중점 추진사업과 사업지구 등 주요 현안 주제로 논의도



서기수(사진 왼쪽 첫 번째)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장이 국회 이원택(사진 오른쪽 끝) 의원, 김동구(사진 오른쪽에서 두 번째) 도의원 등 사업 현황 등의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는 지난 15일 국회 농해수위 간사인 이원택 의원(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을)과 김동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초청해 군산지사 사업 현황을 설명하고 현안을 논의하는 업무 설명회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열린 업무 현황 설명에서 참석자들은 식량 기반 시설 사업, 친환경 용수관리 사업, 농어촌공간 개발사업, 농지은행 사업 등 군산지사 중점 추진사업과 사업지구 등 주요 현안을 주제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기수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는 이 자리에서 올해와 내년도 신규 지구로 추진 중인 ▲3개 지구 배수 개선 사업 297ha, 266억 600만 원을 비롯해 ▲6개 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1,654ha, 187억 600만 원의 예산 선정 필요성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계속되는 지역의 배수 개선 사업에 대한 정부예산 배정과 조속한 착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서기수 군산지사는 “폭우에 대비한 배수 개선 사업을 비롯해 대체 작물과 연계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추진 등 안정적인 농업 기반 시설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민원 해소와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과 농민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원택 국회의원은 이와 관련 “안정적인 농업 기반 시설 확충과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사업에 조속한 정부예산 배정과 착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원택 (사진 왼쪽) 국회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관할 농업기반시설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이날 행사를 마치고 참석자들은 현장을 방문해 문제점을 청취하고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올해와 내년 사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확인하는 시간도 가졌다.



강경창 기자 kangkyungchang@hanmail.net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